

# 지역주택조합 자금 일부 부실 운용

### 제주시 중간점검 결과 불명확 자금 지출 등 확인 조합원 부담 증가... 업무대행사 잇속 챙기기 우려 추후 소명 제대로 안되면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

제주시 관내에서 추진중인 지역주택조합의 자금 운용실태 중간점검 결과 일부 조합이 부실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역주택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개월 동안 자금운용 실태 중간점검 결과 일부 조합이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시 관내에서 추진중인 지역주택조합은 9개소에 1660세대(가입 조합원 1129명)이다. 시는 이 가운데 지난 2월에 모집신고가 수리된 도련1동 지

역주택조합을 제외한 8개 사업장(총 1540세대·가입 조합원 1062세대)에 대해 전반적인 자금운용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8개 사업장의 총 운영 자금은 조합원 분담금(가입비) 622억과 자체 대출 및 차입금 843억원을 포함한 총 1465억원으로, 이 중 1364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자금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명확한 자금이 지출되는 등 자금관리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업무대

행사에서 조합원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대행비 외 조합원 모집 대행수수료를 별도 책정하고 대다수 비용을 조기 집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로 인해 부족한 사업비는 대출(차입금) 등으로 조달해 조합원들의 이자비용이 조합원 부담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발생하는 광고비 및 홍보관 운영 등 많은 홍보비용 전액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로 책정하면서, 조합원 모집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비용이 증가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보관련 비용은 7개 사업장 평균 21억9200만원을 지출했으며, 최저는 10억6700만원, 최대는 43억4800만원 사용한 것으로 보고됐다.

시는 또 일부 사업장의 경우 용역비(컨설팅) 및 조합운영비 등의 형

태로 불명확한 자금이 지출되는 등 자금관리 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조합원들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 등의 잇속을 챙기는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불명확한 자금 지출 자료를 제출한 조합에 대해서는 추후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택법상 조합원 모집은 업무대행자의 업무임에도 추가 모집대행수수료 지출이 위법한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추진하고, 업무대행사(조합원 모집대행업체)의 수입금 자료를 세무당국과도 공유할 계획이다.

이윤형기자 yhlee@ihalla.com

## 오늘의 날씨와 생활

4월 16일 금요일 음 3월 5일 (12물)

###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 주	30%
30%	성 산	30%
30%	고 산	30%
30%	서귀포	30%

### 주간예보

내일	흐림	12/19°C
모레	맑음	11/16°C

### 전통시장 감시다!!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 대체로 흐림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C, 낮 최고기온은 17-20°C로 전망된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낮에는 산지에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제주도 전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해돋이 06:03	달뜨기 08:23
해질미 19:05	달지기 22:55
물때 만조 00:52 12:34	간조 07:22 19:11

식중독지수 + 감기가능지수 +  
주의 보통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 제주소방정책 전국 3위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소방청이 주관하는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에서 전국 3위에 입상, 소방청장 기관표창과 15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평가에서 제주소방은 소방정책관리, 예방안전·현장대응관리, 구조·구급 관리 등 7개 분야·43개 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재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조정밀 소방관제 통합 플랫폼 구축' 등 미래 전략과제 실천과 광역화재조사단 운영, 소방직장협의회 조기 설립 등 조직 역량 강화 성과를 인정 받았다. 송은범기자



세월호 7주기 추모 기간 제주도교육청이 15일부터 25일까지 '세월호 7주기 추모 주간'을 갖는다. 도교육청은 이 기간 분청 1층 로비 등에 추모 현수막을 게시하고 노란리본이 달린 화분을 비치해 세월호의 아픔·교훈을 함께 추모하고 기억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 수원·대정서초·온평초에 '기적의 놀이터' 생긴다

수원초와 대정서초, 온평초등학교에도 '제주형 기적의 놀이터'가 생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현장 실사를 통해 대상 학교 3개교가 최종 선정돼 설립비 2억원을 각각 교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형 기적의 놀이터는 제주의 자연적인 소재를 활용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학생, 학부모, 학교, 행정이 다같이 협력해 만들어가는 놀이터로 이석문 교육감 공약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오은지기자 eojh@ihalla.com

## 2022학년도 대입 진학 지원 본격화 도교육청, 입시설명회·맞춤형 진학 컨설팅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 속 도내 학교현장의 입시지도에 대한 불안감 해소 등을 위해 2022학년도 대학입학 진학지도 운영 계획을 세우고 본격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교육청이 15일 밝힌 대입 진학지도 운영 일정을 살펴보면 올해 도내 수험생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입시설명회가 열린다. 5월 카이스트 입시설명회를 시작

으로 학부모 진학코칭 아카데미를 8차시 동영상으로 제작해 제공되며, 5개 사관학교 입학설명회도 열린다. 또 읍면지역학교를 비롯한 도내 고등학교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진학 컨설팅'도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고 1·2 담임교사들을 대상으로 '대교협 대표강사 초청 교사 연수'와 '진학지도 역량강화 교사 직무연수'를 확대 실시한다. 도내 고

교 교사들의 진학지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도내 학생, 학부모와의 진학상담과 실제 진학지도에서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제주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는 학교방문 진학컨설팅, 진로진학지원센터 방문상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 진학코칭 아카데미'가 지속 운영된다. 이밖에 제주진학지도교과교육연구회가 주관하는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 학생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강의 구성의 질적 향상 및 홍보에도 주력한다. 오은지기자

## 자연체험파크 부지서 제주고사리삼 발견

### 꽃자왈포럼 사업 중단 촉구

제주자연체험파크 예정 부지에서 제주에만 있는 '제주고사리삼'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사)꽃자왈사람들, (사)제주올레,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꽃자왈포럼'은 15일 성명을 내고 "제주자치도는 꽃자왈 보전정책의 진정성에 반하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

했다.

꽃자왈포럼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세계적 희귀종인 제주고사리삼이 자생하거나 자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110여 곳이 확인되는 등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꽃자왈"이라며 "(향후 사업의 진행 방향은) 제주도 꽃자왈 보전정책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시험대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은범기자

## 제주도,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재검토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2021-2030 제주환경보전기본계획'에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추진 로드맵 수립 및 징수 공론화 추진을 명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추진 로드맵에는 사유재산권 침해와 보상 등을 위한 징수 계획이 담길 전망이다. 제주자치도는 로드맵 수립 후 도민과 국립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를 검토한다.

정부가 2007년 전국 국립공원 입

장료를 폐지한 이후 제주도는 환경훼손 문제 등이 대두되자 지난 2014년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방안을 재검토했다. 하지만 2016년 형평성 등의 문제로 한라산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는 무산됐다.

특히 원안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제주도가 관광객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이용시 1일 50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도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까지 병행되면서 논란이 예고된다. 강다혜기자

# 시대의 물음에 기술로 답하겠습니다

한결같이 고객 여러분께 큰 만족과 믿음을 주고  
믿음을 넘어 기분 좋은 행복을 전하는 사람들,  
끊임없는 도전과 창의적인 사고로 무한한 감동을 이끌어내는 기업!  
영도종합건설은 오늘도 제주도민 곁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라일보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주)영도종합건설**  
Youngdo Construction & Industry, Inc.

대표이사 **고영두** 외 임직원 일동

제주시 고마로 108-1 102동 2층 / 대표전화 752-2411, FAX. 752-2412